

추모사

송진우 선생의 추모사에 앞서,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을 당한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목을 빌며,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님의 탄신 124주년을 맞아 선생님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며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의 예를 올립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일본유학을 마치신 이후, 귀국하시어 중앙중학 교장에 취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셨습니다.

당시 중앙중학은 3.1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운동을 계획한 장소로 알려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서는 계획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로인해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출감 이후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신 후, 30여 년 동안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하신

선생님께서서는 8·15 광복 이후, 건국준비위원회와 맞서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특히 폭넓은 인간관계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추진세력의 결집에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하셨는데, 그 당시 선생님께서 발휘하신 관용과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환국할 즈음, 선생님께서서는 국민 환영대회를 준비하면서“우리의 정부로는 기미독립 이후로 구현된 대한임시정부가 최고요, 유일의 존재”라 역설하셨으며,

“파당을 초월하여 이를 환영하고, 이를 지지하고, 이에 귀일함이 타당한 대의명분”이라 하시며 일찌감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내세운 분단극복과 통일정부 수립구상이 민족의 미래를 여는 중차대한 길이었음을 훤히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셨던 것입니다.

겨레의 자주독립과 통일의 초석이 되신 고하 선생님이시어!

선생님께서도 세월호 침몰 참사로 가족을 잃어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이를 함께 슬퍼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어 이들이 고통과 시련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음우하여 주옵시고, 민족정기가 바로 서고, 통일된 한반도를 후세들에게 제대로 물려주려는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더 많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2014. 5. 8

광복회장 박유철